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추원합니다



### 사설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새해 주제100(2011)년의 첫아침이 밝아왔다.

지금 온 겨레는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올해에 조국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지난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자랑찬 해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으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지난해에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년초부터 《통일대계탐색연구》나 뉘니 하는 《흡수통일》각 본들을 짜놓고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한 남조선당국은 《천안》호침몰사건이라는 특대형모략극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으로 몰아갔다. 남조선호전세력은 그 누구에 대한 《응징》과 《보복》을 부르짖으며 조선동서해에서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는 한편 위협천만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가를 강행하고 외세에게 동족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사대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함성침몰사건을 구실로 더욱 악랄해진 보수당국의 대결소동은 연평도포사격도발로 전쟁위험을 몰아오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5.1절 북남로동자통일행사, 6.15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키고 북남사이의 접촉과 교류사업들을 가로막아나섰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겨레의 통일지향에 정면도전해나섰다.

북남사이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침예한 정세가 조성되었지만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신심뜨음이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새해공동사실에 접하여 전체 조선민족에게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이 되는 2010년을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전환의 해로 빛나게 장식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6.15통일시대를 굳건히 이어나가자는 애국애족의 호소에 호응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을 뜻깊게 맞이할데 대한 특별결의문과 성명들을 채택발표하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 리행하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성 20돐, 10.4선언발표 3돐을 계기로 해내외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다. 이 과정에 북과 남, 해외 3자의 연대련합이 강화되어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범위에서 계속 활기있게 진행되었다.

지난해에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이 계속 힘있게 전진할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민족의 존엄과 안전, 리익을 지키는 필승의 선군정치로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겨레의 통일운동이 6.15의 계도를 따라 나아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주

시어 통일운동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 해주시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내외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1돐, 10.4선언발표 4돐이 되는 해이며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이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사활적인 과업은 없다.

뜻깊은 이해에 우리 겨레는 통일에국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 자주통일 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대결상태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의 정세흐름은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이 초래할것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이 아니라 전쟁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보수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은 온 겨레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배격을 받고있으며 반통일세력은 헤어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정책을 하루 빨리 철회하고 온 겨레가 지지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통일에 역행하는 반공화국모략소동과 통일에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내외호전세력의 광란적인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핵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밀려들고있

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참화를 당할것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고 우리 강토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강력한 반전평화투쟁으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전쟁의 근원을 들어내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더욱 과감히 투쟁하여야 한다. 온 민족은 외세에 명줄을 걸고 그와 결탁하여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친미호전세력의 범피적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대화와 협력은 악화된 현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나가는데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온 민족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호상존중과 리해에 기초하여 북남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레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여 그것이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이 아무리 우심하다 해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명도가 있고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치밑에 굳게 뭉친 우리 민족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2011년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야 할것이다.

# 북남공동선언들은 통일에국의 기치, 승리의 기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자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 위업실현에서 우리 민족모두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통일에국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다.

두차례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에 의하여 마련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 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근본적으로 하고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의해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는 일대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끊어졌던 북과 남사이의 철도가 이어지고 경제, 사회적, 학계를 비롯한 북과 남의 광범한 계층들사이의 래왕과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북남협력과 교류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된것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

렷한 과시이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6.15시대를 통하여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만이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음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통일은 우리 민족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것을 변함없는 신조로 간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과감하게 전진해온 겨레의 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집권초기부터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로,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배타적 민족주의》, 《폐쇄된 민족주의》로 모독해온 남조선당국은 화약내 풍기는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파탄으로 몰아갔다. 또한 시대상적으로 《비핵, 개방, 3 000》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동족에 대한 《흡수통일》 야망을 포괄적으로 드러냈으며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친북파와 세력》, 《리적단체》로 몰아 숙청, 탄

압하는 범죄적당면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이로부터 공화국은 지난난해에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고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성사시켰것을 비롯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공화국이 취한 이러한 대범하고 아량있는 조치들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구현한것으로 하여 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연습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날로 긴장시키고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얼마전 조선서해해상에서 있는 연평도포사격도발사건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준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공화국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떠나 민족적화해와 협력,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것은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제로 되고있다.

북과 남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서로 힘을 합쳐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린다면 밀려드는 전쟁위험을 막고 자주통일의 그날을 앞당길수 있다.

온 민족은 뜨거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북남공동선언들을 적극 지지옹호하며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든든히 틀어쥐고 그 리행을 위한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갈 때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 통일운동을 더욱 거족적으로

우리 조국청사에 뜻깊은 자욱을 새긴 201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고보니 생각되는바가 많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겨레의 투쟁이 중단없이 진행되었다. 북과 남, 해외에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돌기념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북남공동선언리행,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간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통일의지라고는 꼬물꼬물도 없는 보수당국은 합선침몰사건이라는 특

대형모략극을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북남관계를 완전차단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통일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퍼논이 되어 날뛰었다. 보수당국의 광란적인 소동으로 말미암아 평양을 방문했던 통일애국인사가 《죄인》으로 취급되며 철장속에 갇힌것을 비롯하여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주로총, 진보련대 등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많은 단체들과 그 핵심성원들이 탄

압당하였다. 현실은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악랄하게 가로

막고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당대이며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조국통일운동도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단합은 곧 힘이고 승리의 원천이다.

《광개천왕》, 《보국안민》 리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우리 청년도교인들은 남조선의 청년도교인들과 힘을 합쳐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



국 별려나감으로써 2011년을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는 의의깊은 해로 빛내어나가겠다. 전도교정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동관

새해가 밝았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장장 60여년.

철부지시절에 분열의 비극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피를 나눈 혈육들이 북과 남으로 헤어져 버릴 낡고 살을 저미는 리벌의 고통속에 몸부림치던 가슴아픈 사연을 다 담자면 수만권의 책으로도 모자랄것이다.

그계연선지구인 황해남도 연안군직매집의 우정혜지배인도 분열의 아픔을 안고사는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우정혜지배인의 고향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이다. 연안군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배움에 대한 꿈을 안고 서울에서 고학으로 중학교를 다니었다. 해방후 그의 아버지는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 통일애국투쟁의 길에 나섰다. 그러던 아버지가 전쟁시기 적들에게 체포되자 우정혜지배인의 어머니는 7남매중 걸수 있는 3명의 자식들을 북으로 데려보았다. 이렇게 되어 북에는 당시 9살이었던 우정혜지배인을 포함한 세남매가, 남쪽에는 그의 부모와 네명의 동생들이 남게 되었다.

출지에 부모형제들과 헤어진 우정혜지배인의 세남매였던 남나라에서는 그들을 한 품에 안아 세상에 부럼없이 키워주었다. 그 품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직매집지배인으로 일하고있는 우정혜지배인은 어머니조국의 고향에 보답할 일념으로 좋은 일을 많

## 통일의 날을 그리며

이 찾아가였다. 직매집녀성의 힘으로 간석지를 일구어 원로기지를 조성하기도 하고 군안의 인민들에게 한 가지 소비품이라도 더 차례지도록 하기 위해 밤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군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해 길주와 경성을 비롯한 각지의 지방산업공장을 찾아 달리는 열차에서 지새운 낮과 밤은 얼마였던가. 몇달씩 가정을 멀리 떠나 출장지에서 초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지내지 않으면 안되는 때도 있었고 급방으로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소비품을 한가득 싣고 돌아오는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밝은 미소가 어려있군 하였다.

군안의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심정으로 돌보

며 결혼상까지 차려준 우정혜지배인을 가리켜 사람들은 《우리 지배인》으로 친근하게 부르고있다.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자제로 돼지도 길러 지낸 기간 서해갑문,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 나날 우정혜지배인은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수여받았다. 뿐만아니라 여러 국가적대회들에 참가하여 영예를 입은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도 한가득 받아안았다.

얼마전 금강산에서 60여년 만에 헤어졌던 어머니와 오빠, 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정혜지배인은 《남쪽땅에 있었다라면 길가의 조약돌

처럼 버림받았을 내가 어머니조국의 행복의 절정에 올랐다.》

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딸이 누려온 행복넘친 사연을 전해들은 고향의 어머니는 고아나 다름없는 딸을 한 품에 안아 군주민들의 생활을 돌보는 일꾼으로 내세워주신 경에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기쁨에 겨운 상봉은 잠시 잠깐, 기약없는 리벌이 또다시 그들을 갈라놓았다. 통일만이 그의 가정만이 아닌 나라의 수많은 흠어진 가족들의 가슴속에서 리벌의 고통을 영원히 가셔줄수 있는 것이다. 하기에 새해의 이 아침 우정혜지배인은 그리운 혈육들과 함께 모여살 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오기 위해 애국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결의에 충만되어었다.

본사기자 김철민

## 반전평화수호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새해 2011년에 우리 민족이 더 높이 들어야 할 기치는 반전평화수호이다.

대결과 긴장격화로 전 쟁직전까지 치달았던 지난해의 침체한 정세는 우리 민족에게 평화가 넘



나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똑똑히 새겨주었다.

평화가 없으면 통일도 없고 민족의 생존자체도, 번영도 기대할수 없다.

지나해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우리 겨레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각종 군사적도발소동을 일으키며 북침전쟁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왔다. 이것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다치면 리질듯 한 전쟁국면으로 치달아오르고 내외가 커다란 우려와 위구속에 사태전개를 주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위험천만한 속에서도 사태가 전면전쟁으로 번지지 않은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자제와 인내성있는 노력에 의한것이었다.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은 조선반도에서 불신의 골을 깊임없이 깊게 하고 전쟁을 몰아오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통일이 아니라 전쟁을 몰아오는 《비핵, 개방, 3 000》을 끝장내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대결

세력을 부추겨 제2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끝날때 불을 달려는 미국의 범죄적인 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말아야 한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일꾼들은 뜻깊은 새해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겨레와 함께 반전평화수호를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전쟁위험을 막고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안아오는데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홍성철



우정혜지배인 (오른쪽에서부터 두번째)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새해 첫 아침을 맞은 조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격동적인 한해를 빛나게 장식한 자부심과 함께 더욱 번영할 2011년에 대한 신심과 낙관이 차넘치고있다. 지난해에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실의 구조를 심장으로 받들고 총공격전술 힘있게 벌려 민족사

특기할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골지의 철생산기지들에서는 주체철생산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되어 자립경제의 든든한 강철기둥이 세워졌으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섬유인 비날론목포가, 남흥양에서는

주체비료목포가 쏟아져 인민생활향상의 결정적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리를 힘있게 파시한 대개도간석지의 완공과 대규모의 철갑상어양어체계를 확립하고 우리의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는 최후의 현실을

펼친 룡연양의 기적은 강성대국의 패일을 확연히 약속하고있다. 최첨발전소건설장에서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첨속도로 연제코크리트치기와 물길공사, 발전기설과 송전선공사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일 창조되어 발

전소건설을 기한전에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식료 및 가공기지에서 새롭고 고기, 갖가지 식료품들이 쏟아지고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광광 생산해내는 경공업공장들에서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울

리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 최신식전자설비들로 장비된 전자도서관이 훌륭히 꾸려지고 평양무용대학이 웅장 화려하게 변모되었다. 모란봉기슭의 개신청년공원이 개건되고 국립연극극장과 육류

관 룡리전문식당, 보통강백화점이 새로 일떠섰으며 해방산기슭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짧은 기간에 일떠서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지난해 강성대국의 대문을 련이어 두드리며 다계단으로 일어난 이 모든 변

들은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찬 생활을 안겨주실러은 한해 강행군길에 계신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단호한 결심과 비범한 령도력은 이 땅위에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갈 때 강성대국건설은 문제없다는 것이 새해 첫 진군길에 나선 조국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 기쁨의 새해, 행복의 새해



— 평양양밀공장에서 —



— 룡정양어장에서 —



—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서 —



— 박전건직공장에서 —



— 선홍식료공장에서 —

올해는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릴 2012년을 눈앞에 둔 해이다. 올해에는 모든 분야에서 강성대국의 체모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자립경제의 무진막강한 잠재력이 총발휘되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하기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이 땅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 따라 행복의 대문이 활짝 열릴 그날을 확신에 넘쳐 그려본다.

본사기자 박금일

## 수기 강성대국이 보인다 (3)

### 보통강상점에서

나는 보통강상점에 자주 찾아가곤 한다. 말하자면 《단골손님》인셈이다. 집앞에서 뽕수를 타고 두 정류소를 지나 내리면 력사유적인 보통문이 한눈에 안겨오고 그뒤로 현대적인 안수대거리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가까이에 보통강상점이 자리잡고있다. 얼마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통강상점으로 향하던 나에게는 문득 2년전, 이 상점을 처음으로 찾았던 그날의 감동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났다. 그해 여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찌는듯한 무더위속에서도 새로 건설된 보통강상점을 돌아보시었다는 소식을 신문과 TV를 통해 알게 된 나는 남면저이 곳을 찾았다.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헌지지도강행군길에 나의 마음을 따라세우는것은 고난의 나날부터 내시였로가 세운 생활의 철칙이었던것이다. 보통문을 지나 만수대거리 살림집들을 회한한 심경으로 구경하면서 상점앞에 이르니 멋들어진 건물외형부터가 눈길을 끌었다. 깨끗하고 정갈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겨레의 감정정서에 맞게 한결이 화색의 타일로 장식한것처럼가 현대적미감에 맞게 세련미를 한껏 돋구건물의 외형은 볼수록 마음에 들었다.

리아, 도이월란드, 오스트리아를 비롯하여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을 많이 다녀보았지만 우리의 보통강상점처럼 이름부터 민족적이고 상품들도 100% 우리의것으로 그것도 최고의 수준에서 보장해놓고 봉사하는 상점을 처음 보았다. 우리의 힘, 우리의것으로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창조하는것이 우리 인민들의 배짱이며 민족적자존심이다. 이런 담대한 배짱,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우리 인민들은 고난의 천리길을 헤쳐 마침내 행복의 만리길에 들어서고있다. 남들이 《세계화》의 바람에 휩쓸려 민족성을 훼손하고 몇푼의 돈에 현혹되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외국의 자본에 통제로 내맡길 때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조국의 존로를 지키고 우리 식의 거창한 창조물들을 세계적수준에서 일떠세우고 있다. 싱그러운 향내를 풍기는 사과, 배를 비롯한 꿀맛같은 각종 과일들은 세계적규모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과일산지들에서 따들인것이었다. 칠면조, 오리, 계사니, 메추리 등의 고기들과 각종 고기가공품들도 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것이었다. 제품의 신선도와 질 또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고였다. 나는 지금까지 영국, 이탈리아

의 상냥한 목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다. 순간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2층밖에 안되는 건물에 승강기라니... 그후 나는 봉사원의 말을 통하여 승강기에 깃든 또 하나의 사랑의 일화를 알게 되었다. 새로 건설된 보통강상점의 1층과 2층을 돌아보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맞춤형 과일과 고기가공품들을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득 상점에 승강기가 있는가고 물으시었다고 한다. 2층짜리 건물이다보니 설계할 때부터 승강기를 예견하지 않았다 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젊은 사람들은 일하겠지만 나이많은 사람들과 녀성들이 상품을 사가지고 총계를 오르내리자면 불편을 느낄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인민들의 편의를 그쳐 도모하는것이 아니라 사소한 불편도, 빈틈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해놓을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그 사연을 전해들은 나의 마음은 숙연해졌다. 갖가지 과일과 고기가공품이 넘쳐나는 풍성하고 훌륭한 상점이 세워진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그토록 깊이 넘겨하시니 세상에 우리 장군님 같이신분이 또 어디에 있으랴. 불과 28개밖에 안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인민들의 불편까지도 넘겨하시니 자애로운 어버이. 우리의 강성대국리상은 바로 이렇듯 다심하고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은정속에 가꾸어지고 더 빛나게 실현되는것임을 그날 나는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참으로 보편적의정인민들의 인민사랑의 손길아래 손색없이 꾸려진 강성대국의 표본상점, 인민들이 즐겨찾는 단골상점이다. 재북평화통일축진협의회 회원 정규진

공화국의 품에 안겨 벌써 열번째로 새해를 맞게 된다. 지난 10년간 언제나 기쁨과 환희속에 축하해 준 새해였다. 하지만 이해의 첫 아침에 느끼는 심정은 참으로 류다르다. 선군장정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지난해 조국땅에서 나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련이어 일어났다. 우리 조국의 앞길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10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진 열병대오의 썩씩한 발구름소리, 날바다를 가로막은 대개도간석지의 거창한 모습과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김철의 민세소리, 원홍땅의 파수대령아와 우리의 철갑상어가 바다

로 나가는 회한한 모습은 그대로 선군의 기치 따라 승승장구하는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일단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야하는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듯 소리치며 일떠서고있는 최첨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창한 변혁과 기적들을 목격하면서 나는 격정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어찌 그뿐이랴.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은 개신청년공원과 건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훌륭히 실현한 국립연극극장, 육류관 룡리전문식당과 향만루대중식당, 보통강백화점, 선홍식료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해방산기슭의 살림집에도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은정

깊은 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었다. 바야흐로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좋아지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될 강성대국의 회한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새해에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기적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하면서 조국의 그 기세찬 전진에 나의 작은 발걸음도 따라세울 결의를 가다듬는다. 비전향장기수 장 호



##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확고한 신념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온 공화국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강성대국건설구상에서 새로운 대개도의 불길기 세차게 라번지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의 확고성은 자기의 사상과 로선, 자기식의 투쟁방식을 굳건히 고수해나가는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리상과 념원을 꽃피워주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부무하는 우월한 사회주의는 공화국인민들의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불패성은 위대한 사상과 로선, 자기의 고유한 투쟁방식에 의거하여 전진하는데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기식의 투쟁방식이 제 일이라는 인민들의 신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투쟁의 길은 의연히 간고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추호도 남의 식, 남의 힘을 넘겨다보지 않고 자기 식, 자기 힘으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천만군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평평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은 사회주의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드림 없는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의 확고성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공세를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고있는데서 과시되고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굳건한가 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대결전에서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선군정치는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검증된 필승불패의 정치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검이다. 오늘 사회주의에 대한 공화국인민의 신념은 선군의 길에 자주와 정의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절대적 믿음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그 어떤 천지공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가장 공고하고 투철한것으로 되고있다. 선군정치가 있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굳건히 수호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오늘 공화국인민의 심장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이 드림없는 신념에 기초하여 공화국은 무적의 군력을 다지고다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

대국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이 로포화될수록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원수들과 기어이 결판을 보고야 말겠다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고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공화국인민의 확고한 신념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애국적인정성과 대동적응주의를 낳고 있다. 지난 시기 공화국인민은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같은 심각한 사태도 보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헤쳐왔다. 이 파조에 자기의 신념에 따라 건설한 사회주의가 얼마나 우월하고 귀중한가를 더욱더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 고귀한 전취물을 온 세상에 보란듯이 빛내어갈 각오와 의지를 심장깊이 간직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준엄한 시련이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락관을 가지고 시련을 맞받아 나갔으며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

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공화국인민의 억센 신념에 의하여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이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되고 온 나라에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천지개벽한 나라의 토지와 거창한 자연호름시물길들, 현대화의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농업 및 농업생산기지를, 최첨단과학기술의 놀라운 성과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공화국인민이 자기의 체도로 어떻게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력사의 증거자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일대 변혁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공화국인민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불라는 각오와 열정을 안고 새로운 혁명적대개조를 일으키고 있다. 부강조국의 찬란한 패일을 위하여 더 높이 솟구쳐오르고 더 빨리 내달려 이 땅위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공화국인민의 기세는 비상히 높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신념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이 대대부하가 있어 공화국의 앞길에는 끝없이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권 를

가정의 행복을 바랍니다.

통일애국가업애사의 성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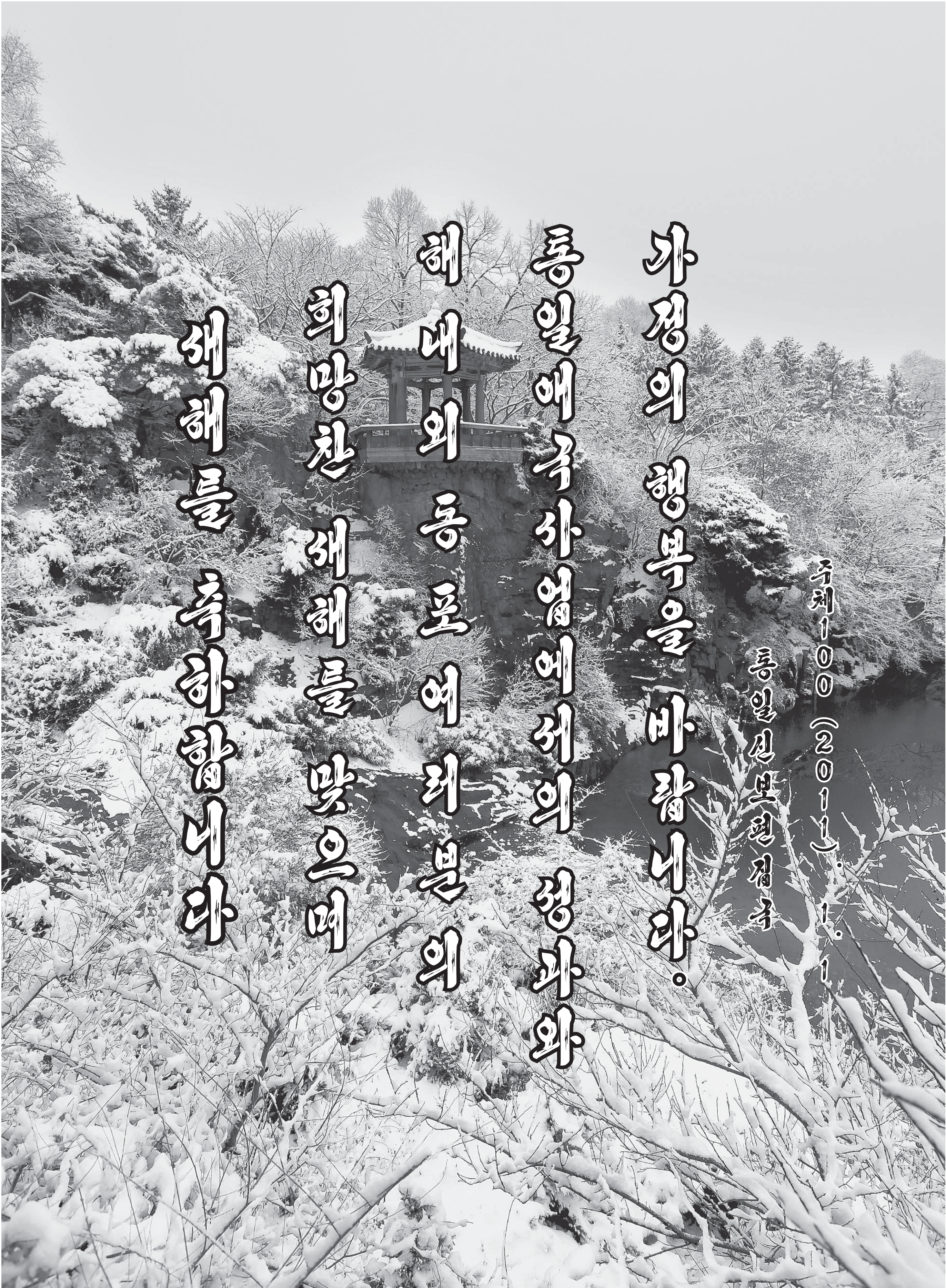
해내외 동포여민의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제 100 (2011) . 1. 1

통일신보편집국



# 새해의 까치소리

딱—딱딱  
한해의 까치가 울어에는  
소리가 새해 첫아침의 대기를  
흔들어놓는다. 부채같은  
꿈지를 달짝달짝 때마다 나무  
아지의 은백색눈이 부서져내  
리며 바람결에 흩날린다.

새해 아침 무슨 기분 소식  
을 알려주는걸까. 맑고 청  
높은 그 소리에 마음이 떨  
로 즐거워진다. 예로부터 까  
치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새  
라고 하여 《희작》으로도  
불리워왔다. 이런 의미에서  
부녀자들은 기쁘고 좋은 일  
만 생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치마단에 《기쁨 회》자  
를 수놓았고 집들에서도 뒤  
주나 고간의 자물쇠, 베개모  
등에 그 글자를 새겨넣어 함  
상 장식과 재물이 넉넉해지  
기를 소원했다.

까치는 반가운 소식을 전  
해주거나 일이 잘되게 하는  
《행운의 새》로 알려져 설  
날 아침 길을 가다가 처음으  
로 까치소리를 들으면 그 해  
에 행운이 온다고 하였다.

까치와 관련된 일화들중  
에는 까치등지에 있는 일명  
《작칠》이라고 불리우는 작  
은 우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작  
칠》을 총각이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마을에 드는 처녀와  
사랑을 이룰수 있고 처녀가  
지니고있으면 마음에 드는  
총각과 사랑을 이룰수 있다  
고 했다.

이처럼 까치는 우리 민족  
의 감정정서에 잘 어울려 반  
가움과 친근감을 안겨주는  
새이다.

새해의 첫아침 청명한 대  
기를 흔들며 울리는 저 까  
치소리. 사회주의에 대한 드립없  
은 신념과 배짱으로 복잡다  
단했던 국제정치무대를 헤쳐  
온 지난해를 돌아보며 격  
동으로 수놓아질 새해의 락  
판을 안겨주는가 유난히도  
다가차고 청높다.

그 소리 들으며 돌이켜  
본다.

비날론대정사소식으로 들  
끓던 그날의 환호와 완공된  
대계도간석지에 울리던 만세  
의 환호, 세계를 놀래운 주

체철생산체계의 완비와 우  
리 식 핵융합반응의 성공으  
로 행성을 뒤흔들었던 크나  
큰 환희의 총격들. 그  
소리에 실려온다.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릴 2012년을 앞두고 이 땅  
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질  
경사로운 소식들과 이 나라  
모든 가정의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올 행복의 웃음소리,  
그 맑은 노래소리들이.

새해의 이 아침, 출추듯  
노래하듯 울리는 저 소리.  
진정 저 소리에서 이 땅  
의 천만명이 어우러져 장중  
하게 울려 퍼질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소리가 새해를  
맞는 공화국의 인민의 가슴  
마다에 장엄히 울려오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혁



# 민족적정서를 안겨주는 달력과 년하장들

새해 주제100(2011)년을  
맞으며 평양출판사에서 달  
력을 출판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  
족에게는 세상에 자랑할만  
한 력사문화유적이 많다.

이번에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한 6세기 종업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내성의 동문  
으로 세워져 우리 인민의 반  
침략투쟁력사가 깃들어있는  
대동문이며 웅장화려하면서  
도 균형이 잘 되어 예로부터  
평양8경의 하나로 불리  
운 보통문, 선조들의 우수

한 건축술과 높은 애국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모란봉의  
현문, 고려봉건국가의 최  
고교육기관으로서 세계적으  
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  
고있는 개성성관문 등을 엿  
모습그대로 보여주는 달력  
을 보느라면 누구나 조선민  
족애일주의정신으로 가슴부  
풀어오른다.

11세기초에 세워져 우리  
나라 건축술을 대표하는 사  
찰로서 예술적가치가 매우  
높은 묘향산의 보현사 그리고  
조계산, 용진전 등 50여  
개의 크고작은 건물들로 이

루어진 석왕사며 《신종래  
화》, 《칠성대화》와 같은  
현문, 고려봉건국가의 최  
고교육기관으로서 세계적으  
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  
고있는 개성성관문 등을 엿  
모습그대로 보여주는 달력  
을 보느라면 누구나 조선민  
족애일주의정신으로 가슴부  
풀어오른다.

진귀하면서도 모양과 색깔  
이 아름다와 사랑을 받는 공  
작새와 금쟁, 관학 그리고  
인간생활과 친숙해진 물까치  
며 두루미, 공작비둘기, 모  
란앵무 등을 사진으로 담은  
달력도 자연계에 대한 품만  
한 지식과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는것으로 하여 인기를  
끌고있다.

새해를 맞으며 평양출판사  
에서는 다양한 내용과 특색  
있는 형식의 년하장들도 많이  
출판하였다.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주  
체성과 민족성, 다양한 생활  
정서를 안겨주는 년하장들  
을 반갑게 받아보며 사람들은  
끝없이 창창할 선군조국의  
태일에 대한 신심과 확신  
에 넘쳐있다.

뜻깊은 새해에 6.15공동선  
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더욱 힘차  
게 열어가기를 호소하는 년  
하장들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민족  
분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  
고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  
당겨올 결의로 가슴 불태우  
게 한다.

평양출판사에서 내놓은  
2011년의 달력과 년하장들  
은 통일강성대국을 향한 새  
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오른  
격려의 투쟁을 고무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 1월의 절기

예로부터 근면하고 솔기로  
운 우리 선조들은 영농과 관  
련하여 24절기를 만들어 리  
용하였다. 립춘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보름간격으로  
되어있는 24절기의 1월  
에는 소한도 들어있다.  
소한은 동지와 대한사  
이에 있는 절기로서 양  
력으로는 1월 5일이나  
6일경이고 음력으로는  
그 전후의 12월에 있게  
된다.

소한은 작은 추위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이다.  
동지가 지나서 대가온도  
가 갑자기 내려가면 사  
람들은 소한추위가 시작되  
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한해 겨울치고 제일 추운 기  
간은 소한으로부터 시작된다

고 볼수 있다. 그런데로부터 《대한이 소  
한에 집에 둘러앉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소한때에는  
반드시 추워진다는 의  
미에서 《소한추위는  
꾸어서라도 온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소한추위때 립춘을 앞  
둔 대한때보다 더 추  
운 느낌을 받는다. 소  
한날 평양지방에서의 평  
균기온자료에 의하면 최  
고기온은 -2.3℃, 최  
저기온은 -12.8℃이  
며 평균 25cm에서의 온도  
는 -1.2℃이다.

올해의 소한은 1월 6일이다. 본사기자

# 아시는지요? 건강에 좋은 국

예로부터 《식사하기 전에  
국을 먹으면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고 이르렀다.  
이 말은 과학적리치에 맞는  
말이다.

구강, 인후, 식도, 위는 다  
같이 음식물통로이므로 식사  
하기 전에 국을 먹으면 음식  
물이 쉽게 내려가고 굳은 음  
식물이 소화기에 있는 점막을  
자극하는것을 방지한다. 이것  
은 소화기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다. 식사도중에 자주  
국을 먹어도 건강에 좋다.

국은 음식물을 회식시킴  
으로 위장의 소화 및 흡수기능  
을 도와준다. 만약 식사전이나  
식사도중에 국을 먹지 않  
으면 식사후 위액의 대량적  
인 분비로 체액이 많이 소비  
되며 소화흡수에 나쁜 영향  
을 준다.

영양학자들은 식사전이나 식사도중에 국을 먹는 습관

을 키우면 식도염과 위염의  
발생을 줄일수 있다고 주장  
하고있다. 그러나 밥을 죽에  
말아먹는 경우는 사정이 다  
르다. 음식물을 씹는것은 목  
으로 삼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타액이 음  
식물에 충분히 섞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타액은 음식물  
을 계속 씹을수록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죽은 점심과 저  
녁식사때에는 반사발정도 먹  
는것이 좋으며 아침식사때에  
는 밥사이에 인체에서 수분  
이 많이 빠지므로 충분히 먹  
는것이 좋다.

국을 먹는 시간을 잘 선택  
하는것도 중요하다. 식사하  
기 전에 조금 먹고 식사도  
중에는 천천히 조금씩 먹는  
다. 그리고 위에 부담이 되  
게 국을 지나치게 먹지 말아  
야 한다.

본사기자

# 주제100(2011)년 새해우표가 나왔다

새해 주제100(2011)년을  
맞으며 우표를 발행하였다.  
올해는 온 나라 전체 인민  
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2012년에  
가이이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  
에 부럼없이 사는 강성대국  
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는  
보람찬 투쟁과 위훈의 해  
이다.

이번에 발행된 우표에는  
무적의 선군총대와 최첨단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  
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  
명적대고조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갈 드높은 신  
심과 열의에 넘쳐있는 인민  
군군인과 지식인, 로동자,



농민의 모습이 힘있게 형상  
되어있다. 이와 함께 우표에는 《새  
해를 축하합니다》, 《주제

100(2011)》, 《강성대국  
2012》라는 글말이 새겨져  
있다. 본사기자

# 올해에 있게 될 국제경기들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공격  
전이 더욱 힘있게 벌어질 듯  
깊은 올해에 해외동포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공화국의 체육선수들이 어  
러 국제경기들에 참가하게  
된다.

2010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와 2010년 아  
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  
회에서 단연  
1등을 하여 세  
계를 향해 나  
아가는 주체  
체육의 위용과 더욱 창창한 우  
리 나라 축구발전의 미래를  
잘 보여준 우리의 미더운 축  
구선수들이 올해에 2011년  
20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와  
2011년 17살미만 월드컵경  
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그  
리고 여자축구선수들은 올  
해 6월 도이칠란드에서 개막되  
는 2011년 여자월드컵경기대  
회에 출전하게 된다.

조국의 품속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난 우  
리의 미더운 남녀축구선수  
들은 월드컵경기들에서 또  
다시 조국의 영예를 떨칠 신  
심에 넘쳐있다. 당면하여 올  
해 1월에 가라라에서 열리는  
2011년 아시아컵축구경기대

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  
기 위한 훈련에 마지막 박차  
를 가하고있다.

1월 까자흐스탄에서 진  
행되는 제7차 겨울철아시아  
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  
리 선수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그뿐아니라 2011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프랑

# 우승의 신심에 넘쳐있는 체육선수들

《우리는 무슨 상을 바  
라고 경기를  
하는것이 아  
닙니다. 평화  
적시기에는  
체육을 통해  
서 나라의 영  
예를 떨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오  
늘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지난해 제16차 아시아경기  
대회 령기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수여받은 우리 나  
라의 방금철선수가 웨칭 심  
장의 목소리는 그대로 온 나  
라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심  
정이기도 하다. 승리는 더  
큰 승리로 이어져야 빛이  
나는 법이다. 하기에 자랑사  
러운 우리 체육인들은 사상  
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  
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  
에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더  
욱 높이 떨쳐갈 열의로 총만  
되어있다.

올해에 공화국의 체육선  
수들은 세계적범위의 경기  
대회들뿐아니라 아시아너  
자축구선수권대회, 아시아  
청소년바드민턴선수권대회,  
본사기자 흥범식

스)와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들도 금메달을 위한 치열한  
마당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녀력기  
62kg급과 58.6kg급, 56kg급  
종목들에서 우리 선수들은  
위력한 우승후보자로 지목  
되고있다.

슬로베니아에서 진행되는  
세계력기선수권대회와 네  
델란드에서 열릴 2011년 세  
계탁구개인선수권대회에 참  
가하는 선수들도 승리의 신  
심에 넘쳐있다.

올해에 공화국의 체육선  
수들은 세계적범위의 경기  
대회들뿐아니라 아시아너  
자축구선수권대회, 아시아  
청소년바드민턴선수권대회,  
본사기자 흥범식



# 단편소설

## 아버지의 약속 (1)

글 량 흥 일, 그림 허 은 혁

《어보 령감, 마늘을 뽑아  
야지 어떡 가지우?》  
《날 보구 리밭에 앉아서  
매생이 노질이나 하라는거  
요?》

《내 좀 말했수. 그제 령  
감이 할 일부라구. 여기가  
공격출발진지예요.》

《제법이군. 의용군녀병사  
가 달라! 헌데 내가 직속상  
관이라는걸 잊었소.》

《이그, 거 그물바줄같이  
꺼칠거칠한 손을 저리 치우  
시라구요.》

《바다에 나가보자구 그  
래. 오늘 트랄06호가 출항한  
단니까.》

《환장한게 아니우? 당장  
평양에서 사람이 내려오  
고 떠나야 할 판에. 바다가 그  
러다 귀하우?》

《또또, 시앗싸음같은 소  
리란, 생물 한두를 가져오자

구 그래. 성각이 그 사람이  
오면 로친네 솜씨를 보여야  
지.》  
《에이구, 큰 배 선장을  
서론해가 넘도록 했다지만  
그 손에 들려온 생물맛을 본  
일이 없수다.》

세월이란 참으로 무상하  
구. 고향이 지적인 여기 수  
산사업소에 포연이 배인 군  
용배낭을 풀어놓은지도 어  
느덧... 마흔일곱해가 지나갔  
어디...

바다우에서도 전후복구  
설의 노래가 힘차게 울렸다.  
제1차 5개년계획을 초과완수  
하고 전후 첫 훈장을 수여받  
던 감격, 출항과 귀항의 부  
두가에서 정다운 웃음 한가  
구 담고 배려주고 맞아주던  
안혜 한순나의 아름다운 열  
굴도 주름에 묻혀버렸다.

주정림은 바다기슭을 따라  
걸음을 옮긴다. 골짜기 든든  
한 뚝대같은 제구에 입은 웃  
도 바다바람에 뚝뚝같이 나  
뚝인다. 회색해진 수북한 눈  
섭밀에 자리잡은 재빛을 띠  
기 시작한 검은 눈동자에 상  
님의 안개가 흐른다. 수십년  
의 해풍은 그의 얼굴을 고동  
색바위모양으로 만들어놓았  
다. 주름때인 이마, 우뚝한  
코마루와 팽배배, 푹 꺼진  
볼과 검고 단 수염발에 자리  
잡은 까다몰린 입술...  
인생은 세월을 거역하지  
못한다.  
피가 동이체로 끓던 30대,  
바다의 법같은 기상이 백발  
속에 아쉬운 미련마냥 남아  
자기를 돌아볼뿐이다.  
바다를 보지 않으며 살자  
고 마음먹었던 그다. 가슴속  
에 원한을,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긴 그 바다에

서 한생을 살아온 주정림이  
고보면 소금물에 상처를 잠  
그고 모진 아픔을 이겨온것  
이다.  
그의 뇌리에서 회성이 울  
부짚는다. 눈앞으로 검푸른  
파도가 먹이를 던치는 사나  
운 새의 날개처럼 밀려든다.  
우리가 할과 바다를 위압  
한다. 창끝같은 번개는 섬광  
을 번뜩이며 바다기슭 절벽  
을 세차게 들부서댄다. 우리  
풍—광풍— 대자연의 광란  
적인 칼바람에 땅도 바다도  
몸부림친다.  
주정림의 시야를 괴물같은  
파도가 팍 뒤덮는다. 그속  
에서 울려오는 절망적인 목  
소리...  
《어보—》  
《경필아—》  
《아버지—》  
우뢰와 번개소리사이로 기  
관총이 울부짚는다.  
《저 귀족같은 미국놈들이  
바다에도 38°선을 그어놓은  
줄은 몰랐구나!...》  
《어보! 해언이를... 부락  
해요...》  
《야야, 해사에 조심하거

라. 아버지도 이젠 늙은 몸  
이 아니냐. ... 예구, 낚시는  
왜 이리도 스산한지.》  
《씨런느러문 하늘을 바라  
보며 하는 어머니의 격정어  
린 당부였다.

《어머니, 넘려마세요. 해  
언이란 잘 배우세요. 래일  
저녁에는 돌아와요.》  
어머니의 잔등에 업힌 귀  
여운 딸애의 모습, 첫맛도는

함께 맛있는걸 가지러 간다.  
그러니 그동안 할머니와 함  
께 울지 말고 있어요.》  
버둥개지같은 오동동한 자  
그마한 손에 골뱅이를 쥐어  
주는 안혜의 모습, 찡찡눈  
떨애는 그걸 입에 넣고 빨  
다 말고 제 엄마를 향해 불  
우물을 지으며 귀엽게 해죽  
웃는다.  
이제야 잣 한살을 넘긴 어  
고말았다.  
어둑속을 통탕통탕거리며  
25마력짜리 낚은 묵선은 가  
난한 한 가정의 운명을 걸  
머지고 천천히 잔파도를 헤  
가르며 나아갔다. 강화도로  
부터 멀리 떨어진 서해어장  
인 영평도인데 어떤 수면을 덮  
어지는 격으로 낚줄이 세찬  
선들에서 비치는 카바이드등  
으로 꿰고있었다. 밤하늘은  
구름에 가리워 별빛 한점 없  
었다. 그물을 놓고 한숨 돌  
리며 담배를 불어부는데 때  
 아닌 담서폰이 일기 시작하  
였다. 밀물이 시작되면서 파  
도는 더욱더 사나워져 금시  
배는 뒤집힐것만 같았다. 그  
속에서 자못을 걷는다는것은  
목을숨 내대는 일이었다. 그  
렇다고 외상으로 당긴 그물  
을 버리지나 살점을 저미는  
것만 같았다.  
주정림의 눈앞엔 뒤산처럼  
높아지는 빗더미가 밝혀  
왔다. 하여 그는 목숨을 내  
대고서라도 그물을 거두려고  
하였다.

《너 죽자고 그러니? 어서  
발등을 걸고 연안쪽으로 대



린 손내에를 업은 어머니가  
서있는 부두가가 점점 멀어  
지더니 아에 어둑속에 묻히  
《해언아, 엄마는 아빠와

《너 죽자고 그러니? 어서  
발등을 걸고 연안쪽으로 대

《너 죽자고 그러니? 어서  
발등을 걸고 연안쪽으로 대

《너 죽자고 그러니? 어서  
발등을 걸고 연안쪽으로 대